

대한전기협회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 **한준호 회장 재선임**

- **박천진 상근부회장, 양한식 전무이사 선임**



박천진 신임 상근부회장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및 업·단체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기만료 임원선임(안)에 대한 의안을 상정, 승인했다.

임원선임과 관련, 한준호 현 회장을 재선임했으며, 박천진 협회 전무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양한식 전 한전 정보화추진처장을 협회 전무이사로 선임하는 것 외에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GS파워(주) 정천수 사장을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

한준호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4년동안 다섯 개로 고시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을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협회의 주요사업인 KEPIC의 5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0일 전기의 날을 전후하여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매년 ‘한·일 전기기술 컨퍼런스’를 상호 개최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중동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79년부터 공직생활에 몸 담아 왔으며, 산업자원부 가격조사과장, 감사담당관, 아주협력과장, 전력산업과장을 거친 후 2005년 5월부터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해 왔다.

양한식 전무는 경남고와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6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영업본부 판매SI실장, 경남지사 밀양지점장, 정보화추진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회원인 ▲ LS전선 ▲ 영화산업전기, 개인회원인 ▲ 선우현범 동북아에너지 포럼 회장 ▲ 정재희 서울산업대 공대교수 등 전기산업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